

# 백엔드 데브코스 4기 **New 1**차 피어리뷰 결과를 공유합니다

- 과정명: 프로그래머스 데브코스: 클라우드 기반 백엔드 엔지니어링
- 리뷰 기간 : 2023/6/19(월) ~ 2023/8/4(금)
- 1. 피어리뷰
- 2. 멘티리뷰

## 읽기 전 유의해주세요

- 모든 내용은 직접 제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 일부 정성적인 내용은 더 나은 내용 전달을 위해 수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 향후 데브코스 생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읽고나서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누가 나서서 얘기해주지 못했던 나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진단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동료들에게 이런 식으로 비춰졌구나”
- 타인의 의견을 품고, 수용하여 성장할 수 있는 **‘어른’**과 **‘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

## 1. 멘티리뷰 결과

해당 기간에 느낀 개발 기술 역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곤란
1	1			

해당 기간에 느낀 개발, 협업 스킬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곤란
1	1			

해당 기간에 느낀 문제 해결 능력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곤란

1	1			
---	---	--	--	--

해당 기간에 느낀 자기 주도 학습 태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곤란
1	1			

리뷰 내용	
멘토 1	<p>종운님 같은 개발자는 제가 좋아하는 개발자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팀 활동을 하십니다. 그중에서 좋았던 건 본인이 모르는 걸 공개된 채널에서 말할 수 있고, 또 알게 된걸 잘 공유해주십니다. 남들 앞에서 무지를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공유 덕분에 다른 분들과 저도 의견교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 <p>아쉬운 부분은 고민이 많으신 점인데요. 제가 의견을 드렸을 때,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리뷰어가 생각과 다른방향으로 갈 때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는 거 같고, 앞으로 성장을 기대합니다!</p>
멘토 2	<p>"다듬어지지 않은 원석"</p> <p>이게 완벽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데브코스 기간 동안의 종운님이 해온 모습을 보면 모든 개발자가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로 고를거고 모든 채용 담당자가 뽑고 싶어 안달날 것 같아요.</p> <p>개발을 대하는 자세, 깊숙히 공부하는 방식, 정리하고 공유하는 학습 방법까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3년 후 10년 후에 얼마나 뛰어난 개발자가 되어있을지 기대됩니다.</p> <p>제가 딱히 조언을 드릴만한 건 없고, 번아웃 오지 않게 관리하면서 지금처럼 유지하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p>

## 2. 피어리뷰 결과

해당 기간에 느낀 개발 기술 역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곤란
2	3			

해당 기간에 느낀 개발, 협업 스킬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곤란
1	4			

해당 기간에 느낀 문제 해결 능력				
타월	우수	보통	미흡	곤란
3	1	1		

해당 기간에 느낀 자기 주도 학습 태도				
타월	우수	보통	미흡	곤란
4	1			

리뷰 내용	
<p>좋았던 점 칭찬할 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공부 내용을 자주 공유합니다. 질문을 자주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종운님이랑 이야기 하면서 배운 점이 꽤 많아요.</li> <li>2.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려는 모습을 칭찬합니다.</li> <li>3. 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 내 1등인것 같습니다.</li> <li>4. 어떤 기술/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함</li> <li>5. 팀활동에 가장 적극적입니다.</li> </ol>
<p>생각해볼 점 (제안/개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오버 엔지니어링이 많이 심해요. 개발은 본인의 기술적(?)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는 것임을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프라적인 기술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너무 많은 예외 커스텀, 과할 정도의 상황 가정 이런 것들이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책임 분리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고.. 객체지향과 가독성은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 관계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 분리해버리면 코드를 보는 사람이 힘들어요. 조금은 절차적인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해당 코드의 책임을 적당한 선으로 갖게 하면 좋겠습니다.</li> </ol>
<p>고마운 점 감사한 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게더에 자주 접속해서 문제를 공유하고 소통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과정 덕분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li> <li>2. 페어프로그래밍을 통해 평소 생각하지 않으며 개발했던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li> <li>3. 팀에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생각이 있음</li> <li>4. 궁금한 점 생길 때마다 자주 여쭙았는데 그때마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굉장히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li> </ol>

(문서 끝)